

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4. 12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144천 km ²	GDP	1,632억 달러 (2013년)
인구	157백만 명 (2013년)	1인당 GDP	1,042달러 (2013년)
정치체제	내각책임제	통화단위	Taka (Tk)
대외정책	비동맹중립	환율 (달러당)	78.1 (2013)

- 동쪽으로는 미얀마, 서쪽으로는 인도, 남쪽으로는 벵갈만과 접하고 있으며 세계 제1위의 인구밀도(1,203명/km², 2013년)를 기록하고 있음.
- 1947년 종교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동벵갈지역(현 방글라데시)은 파키스탄의 일부로 인도로부터 독립하였으나, 동파키스탄인 차별 정책에 대한 반발 심화로 분리주의를 내세운 아와미 연맹(AL)이 집권하면서 1971년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에서 탈퇴함.
- 전형적인 저개발농업국가로 전체인구의 약 45%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, 농업생산성이 낮아 외자 및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.
- 소수민족 비중이 낮아 문화적 동질성이 높으나 문맹률이 높고 인구 1%에 해당하는 상류층이 국부의 90%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빈부격차가 심각함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 ^f
경제성장률	6.0	6.5	6.3	6.1	6.2
재정수지/GDP	-2.7	-3.6	-3.0	-3.4	-2.7
소비자물가상승률	8.1	10.7	6.2	7.5	7.2

자료: IMF.

* 회계기간: 7.1~6.30, ex) 2010.7.1~2011.6.30 → 2011년 표기

□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확대로 2014년 경제성장률 6.2% 시현 전망

-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,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소득 증가,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6%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.
- 2012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로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나,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상품수출 감소, 곡물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6.3%를 기록함.
- 2013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.1%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농업 생산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와 인프라 사업 투자 증가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로 6.2%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.

□ 연료비 보조금 축소 등으로 2014년 재정수지 적자 비중 2.7%로 축소

- 방글라데시는 취약한 세수기반, 복잡한 조세 제도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석유 제품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제공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2012년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.0%로 축소되었으나 2013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복지지출이 확대되어 동 비중이 3.4%로 확대되었음.
- 2014년에는 전력 등 인프라 투자와 복지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료 보조금 축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.7%로 감소할 전망이다.

□ 임금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2014년 물가상승률은 7.2% 전망

- 2012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,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 공급 축소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.2%로 하락함.
- 2013년에는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인상, 전기료 및 유류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.5%를 기록하였으며, 2014년에는 임금인상과 보조금 축소에 따른 연료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.2%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농업, 의류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

- 농업은 GDP의 17%를 점유하고 있으나, 전체 노동력의 45%이상이 동 부문에 종사하는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.
 - * GDP 대비 산업별 비중('13년 기준): 서비스업 54%, 제조업 29%, 농업 17%
- 제조업의 58%를 차지하는 의류산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자본재 및 소비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 - 의류산업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약 80%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약 5.3%(약 400만명)가 종사하고 있음.

□ 부패 및 행정 비효율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

-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따른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.
 - 국제투명성기구(TI: Transparency International)가 평가한 2013년 방글라데시 부패인식지수(Corruption Perceptions Index)는 176개국 중 136위로 하위권에 해당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

- 동국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억 6,400만명(세계 9위)에 이르며 총인구의 65.2%가 경제활동인구(15~64세)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.
- 월 평균임금은 74달러로 주변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함.
- * 월평균 임금수준: 베트남(145달러), 파키스탄(173달러) 인도(276달러)

□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

- 교통, 전력 등 인프라가 열악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 - 전체 내륙 운송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객 73%, 화물 63% 수준이나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정체가 심하며 철도의 경우 여객 및 화물 분담률이 매우 미미함.
 - 전력 발전시설 부족으로 만성적인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약 40%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.
- 정부는 'Vision 2021'이라는 국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세출의 30% 이상을 개발프로그램(Annual Development Program, ADP)에 배정하는 등 인프라 부문의 발전에 힘쓰고 있음.
 - 정부는 민간 부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세계은행(World Bank)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프라 개발 기금을 설치하여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빈곤 퇴치 프로젝트 시행 등의 결과로 빈곤률 감소

- 방글라데시 정부는 기본생활수준, 보건, 교육, 환경에 대한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PRSP(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) 프로젝트 등을 시행함에 따라 빈곤률이 56.6%(1992년)에서 31.5%(2010년)로 감소함.
- 이외에, 기대수명이 59세(1990년)에서 69세(2011년)로 향상되었으며, 유아사망률(천명당)도 139명(1990년)에서 46명(2011년)으로 개선됨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 ^f
경 상 수 지	507	-1,337	971	1,968	276
경상수지 / GDP	0.4	-1.0	0.7	1.2	0.1
상 품 수 지	-6,888	-8,371	-6,510	-6,373	-7,296
수 출	21,082	25,626	25,428	28,623	31,199
수 입	27,970	33,997	31,938	34,996	38,495
외 환 보 유 액	10,564	8,510	12,031	17,564	20,937
총 외 채 잔 액	25,752	27,326	26,130	26,632	26,823
총외채잔액 / GDP	20.9	20.6	19.0	16.3	14.4
D. S. R.	3.0	3.7	3.6	4.0	3.8

자료: IMF, OECD.

□ 소득 증가와 인프라 개발 수요로 2014년 상품수지 적자는 소폭 상승 전망

- 저부가가치 상품 위주로 수출하고 원자재, 자본재, 소비재 등을 수입하는 교역구조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,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.
-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상품수출 감소보다 국제유가 안정으로 수입액이 더 크게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는 6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10억 달러를 기록함.
- 2013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및 황마 등의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증가함.
- 2014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와 상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와 인프라 개발 수요로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액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2.8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.

□ 외채의 83%가 장기 양허성 차관이며 2013년 D.S.R은 3.8% 수준으로 양호

-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16.3%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또한, 외채의 83%가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인데다 정부가 외국인 증권투자 및 민간부문 해외차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변동성이 크지 않음.
- 외채 증가세의 둔화와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2010년 이후 D.S.R은 4%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은 2011년 8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5.1개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동향

□ 총선 무효 시위 등에 따른 정국 불안은 다소 안정화

- 방글라데시 국민당(BNP)을 주축으로 한 야당 연합이 2014년 1월 시행된 총선에 불참하고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이를 경찰이 무력 진압 하면서 야당 지지자 150명 이상이 사망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음.
-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이끄는 아와이 연맹은 야권의 불참과 유혈 사태 속에서도 예정대로 총선을 강행해 총 300개 선거구 가운데 232석을 차지하였으나 투표율은 20% 수준을 기록하는 등 반쪽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음. 또한, 선거일 발생한 유혈사태에 대해 미국, EU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함.
- 야당의 총선 무효주장이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도 낮아 총선 무효화 및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, 2019년까지 현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.

2. 사회동향

□ 의류노동자의 불만을 수용하여 의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

- 2012년 다카 인근 패션 의류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2013년 4월 라나 플라자 의류공장 붕괴 사고로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증가하였음.
- 2013년 9월 20만 명의 의류노동자들이 수도 다카 인근 지역에서 사흘간 월 최저임금 인상,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부상당함.
- 방글라데시 정부는 의류노동자들의 불만을 일부 수용하여 2013년 12월 의류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(38달러)을 77% 인상한 68달러 수준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2010년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인상임.

□ 이슬람지도자 사형선고에 반발하는 폭력시위 발생

- 2013년 1월 방글라데시 전범재판소는 최대 이슬람 정당인 '자마트-에-이슬라미(Jamaat-e-Islami)'의 주요 인사들에게 1971년 독립전쟁 당시 종교 탄압 및 강간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2013년 12월 야당 지도자 압둘 카데르 몰라의 사형을 집행함.
- 이후 이를 반대하는 이슬람 지지자들과 경찰과의 유혈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.

3. 국제관계

□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 노력

-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군수품 공급원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 또한,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 공여 등을 통해 동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.

□ 인도와 경제·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이나 갈등 발생 가능성 상존

- 2013년 기준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제2위 수입국(전체 수입액의 16.3%)으로 주로 면, 면사, 곡물, 차량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인도의 맘모한 싱 전 총리(11.9월)와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(13.3월) 등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등 양국은 경제 및 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음.
- 하지만 2014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, 방글라데시인의 인도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향후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존재함.

□ 주요 공여국인 미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

- 미국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공여국이며 국방, 테러 방지, 안보, 치안유지 등의 분야에서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.
- 다만, 의류공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미국은 2013년 6월 방글라데시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*를 잠정 중단하였음.
- * 특정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 등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황 태도

□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2012년부터 IMF 차관 수혜 중

- 2012년 방글라데시는 외화부족 등을 이유로 IMF 차관 제공을 요청하여 IMF는 2012년 4월부터 3년간 총 9억 8,700만 달러 규모(10년간 이자율 0%)의 확장적 차관(ECF)* 제공을 승인함.
- * 확장적 차관(Extended Credit Facility): 국제수지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IMF 차관의 한 종류로 대출조건이 차입국에 유리한 양허성 차관제도임.

2. 국제시장 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수출입은행	C1 (2014. 12)	D1 (2013. 8)
OECD	6등급 (2014. 6)	6등급 (2013. 6)
S&P	BB- (2010. 4)	-
Moody's	Ba3 (2014. 4)	Ba3 (2010. 4)
Fitch	BB- (2014. 8)	-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- OECD는 2014년 6월 안정적인 경제성장세,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섬유산업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인프라,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의 국가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유지함.
- S&P, Moody's, Fitch는 낙후된 인프라 환경, 취약한 정부의 재정상태, 관료적인 정부시스템 등을 지적하며 방글라데시의 신용등급을 BB-, Ba3, BB-로 유지함.

3.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미국 수은: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,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
- 영국 ECGD: 민간부문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
- 독일 Hermes: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.

4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73년 12월 18일(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)
- 주요협정: 항공협정(1979년), 문화협정(1979년), 이중과세방지협약(1983년), 투자보장협정(1986년), 경제기술협력협정(1993년), 과학기술협력협정(1995년)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<표 1> 한·방글라데시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對 방글라데시	2011	2012	2013	주요품목
수 출	1,628	1,459	1,427	합성수지, 석유제품
수 입	244	295	332	의류, 가죽, 기타섬유제품
합 계	1,872	1,754	1,759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2012년에는 종이, 철강제품 등의 수출 감소로 교역규모가 17.5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석유제품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죽 및 섬유 제품 수입 증가로 전체 교역량이 17.6억 달러를 기록함.
-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9월말 기준 234건, 2.9억 달러(누계기준)를 기록하고 있음.

V. 종합 의견

- 2013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로 6.1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정부지출 및 민간소비 확대로 6.2%의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.
- 2013년에는 복지지출이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3.4%로 확대되었으나 2014년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료 보조금 축소 등으로 동 비율이 2.7%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- 2013년에는 의류 및 농산물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다소 감소함.
- 야권의 불참 속에서도 총선을 강행하여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정국 불안은 다소 안정됨. 또한, 의류노동자 불만을 일부 수용하여 의류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대규모 시위 사태도 다소 완화되었음.
-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과 D.S.R이 낮은 수준이고 외채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.

조사역 유 재 준 (☎02-6255-5705)

E-mail: jjyu@koreaexim.go.kr